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오세민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ohfelix@kdis.ac.kr

대학원명	University of Missouri – Columbia Harry S Truman School of Public Affair	(국가) 미국
기 간	2016.1.1~2016.12.31	[귀국일: 2017년1월4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7년 1 월 9 일

신 청 인 : _____ 오세민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A. Harry S Truman School of Public Affairs 소개 및 수업적응

1839년 설립된 미주리 대학이 설립되었고 단과대학 인 트루만School은 2001년 설립되었으며, KDI School과 dual-degree가 인정된다. 우리나라 6.25 전쟁당시 대통령이었던 Harry S. Truman의 고향이 미주리이므로 이를 기려 본 School 과정을 만들어 졌다. 가까운 거리에 주도인 제퍼슨시 티가 있는 관계로 미주리 주 중견 공무원들이 미드케리어 과정에 참가하고 있었고, 수업중 공무원들과 교류 및 의견을 교환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B. 일반적 생활 적응

콜럼비아의 기후는 대체로 한국과 비슷하나 습도가 낮아 여름에는 좀 덜 더운 것으로 느껴지고 겨울은 좀 덜 춥게 느껴지는 것 같으나, 실제 기온은 여름은 좀 더 덥고, 겨울은 좀더 춥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날씨 변화는 심한 편이고, 햇빛이 한국 보다는 많이 강하다. 평야에 위치한 관계로 캐나다 방향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남쪽 멕시코 방향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의 조화로 날씨 변화가 심하지만 일기예보가 신속하고 대체로 정확하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이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다고 본다.

콜럼비아는 미국의 동서남북 중심에 있는 미주리주에 있는 교육도시로 미국 전역에서 성인 대학이상 졸업율이 가장 높은 도시들 중의 하나이다. 약 40분 거리에 주도인 제퍼슨시티가 있고, 동쪽으로 2시간 거리에 세인트루이스가 있는데 이 도시는 일리노이주와 함께 도시를 공유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캔자스시티가 약 2시간 거리에 있는데 이 도시는 캔자스주와 이 도시를 공유하고 있다. 이 도시는 미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미국의 전역을 이동하기 편리한 곳이고, 미주리 주 최대 교육기관인 미주리 대학교 및 각종 대학들이 있어 미주리 내의 다른 도시에 비해 교육 및 생활환경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교육 중소도시로 기본적인 주유소, 마트,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공원, 극장, 재래시장, 박물관, 도서관 등 실생활과 문화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개인의 취향과 생각의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고 도리어 대도시가 아니라 더 풍요롭다고 말들을 하곤 한다. 실제로 대도시 생활보다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인구 12만여명의 콜럼비아 시는 교육도시로 의료, 교육, 정부 종사자가 많이 살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은퇴하기 좋은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콜럼비아 생활을 만족해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미국 전반적인 상황이기는 하나 의료수가가 너무 높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는 것조차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점, 어두어지면 한적한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점, 인도가 없는 길이 많아 차량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의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하나 이는 미국 중소도시 전반의 불편한 점으로 생각된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Harry S Truman School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총 10과목 4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나, 그중 2과목 6학점이 KDI School과 학점이전이 인정되므로 실제로는 8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석사 논문이나 capstone를 요구하지 않고 KDI School에서 인정하는 논문 등 제출로 갈음한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교육과정 자체를 소해해 나가며 따라가게 자체가 공무원들에게는 도전이 되기도 한다. 수업도중 미국의 사회, 행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본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본 교육을 마치고 근무처로 돌아왔을 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리들을 배울 수 있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GMP 2년차 과정을 미주리 대학으로 올 때 아시아센터에서 입국부터 출국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 주어 무리없이 원활하게 첫 콜롬비아 생활에 정착할 수 있었다. 미국 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소장이 한국 사람이고 주요 직원들이 현지에서 오래 거주한 한국인이라 동반 자녀의 교육, 문화생활, 여행, 종교생활, 의료안내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쉽게 받을 수 있었다.

Dual-Degree 프로그램은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이 정해져 있어 수강과목은 트루만스쿨 내에 스텝이 정해주었다. 단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과목 정도에 불과하였고 수강신청에는 선착순으로 빨리 신청하고 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는 없었다.

보통 한 학기당 3과목 정도를 수강하게 되는데 각 수업당 수업들어가기 전에 읽어야 할 분량이 시기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50페이지 분량임. 따라서,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낮시간 뿐만 아니라 저녁 거의 모든 시간과 주말을 수업을 위한 독서에 소비하였다. 기타 프리젠테이션, 메모, 숙제, 리포트 제출 등은 KDI School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들어야 하는 과목중에 경제학과 통계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 Economic Analysis for Public policy와 Research Method과목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언어의 문제이외에 이해력과 수리력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특히 Research Method의 경우 미국의 중견 공무원 대학원생들조차도 C학점을 받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다. 본인이 MPM(Mater of Public Management) 과정이라 하더라도 미시경제학과 통계학은 KDI School에서 수강을 하고 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콜롬비아에 오는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분들은 대부분 아시아센터의 소개를 통해 기존 거주하던 한국인을 소개받아 주택과 가재도구를 포함해 인수받고 있는데 편리하게 큰 노력없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콜롬비아에 새로 들어오는 한국인 수와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한국인의 수가 일치하지 않아 필요한 생활 가재도구를 못구하는 경우와 가재도구가 남아 가라지 세일을 통해 헐값으로 다른 사람을 주거나 버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통상 인수인계 품목을 작성하고 생활에 필요한 마트 등의 주소록을 기록하여 가재도구나 임대주택을 인수하시는 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통례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나의 경우 처럼. 주택 월 임대료가 600달러에서 1,400사이로 다양해서 본인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아이 학교, 이웃에 한국인 거주여부 등 본인이 중점을 두는 부분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본다. 통상 가재도구는 50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에서 인계인수 되는 것으로 보이나 특별하게 피아노, 잔디깎는 기계 등이 있으면 별도로 추가하여 금액이 책정된다. 인계 인수하는 가정마다 생활가재도구의 정도가 다르고, 임대 집도 그 집의 상태에 따라 상태와 분위기가 다르나 기본적인 생활하는데는 차이가 없으므로 만족하면서 생활하면 될 것으로 본다.

아시아센터에서 인터넷 신청, 차량등록, 휴대폰 개통, 은행통장 개설, 아이 학교 배정 등에

도움을 받아 하게 되는데 처음이라 대부분 통례에 따라 일을 처리하나, 인터넷 신청 시 대부분 별 생각 없이 매달 50불 정도를 들여 인터넷 TV를 신청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필요 없이 외부 안테나를 연결해 6개 정도의 채널로 충분히 뉴스, 드라마, 스포츠 등을 볼 수 있으므로 인터넷 TV는 필요 없고 인터넷만 신청하면 된다. 이때 인터넷 설치시 내장 와이파이를 월 10달러 비용을 청구하므로 한국에서 가져간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하면 비용을 다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인근 식당의 음식을 많이 먹어보기는 하나 결국 직접해 먹는 것이 가장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미주리 대학 근처 한인마트 (Lee's Market)에서 김치, 쌀 등 음식재료와 전기밥통, 전기장판 등 거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싸게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큰 규모의 한인 마트가 있는 세인트루이스와, 캔자스시티의 한인마트를 종종 이용하기도 한다. 콜럼비아는 다양한 마트에서 싸고 싱싱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형편에 따라 마트를 선택해 이용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나의 경우 ALDI 매장에서 가장 저렴하고 싱싱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수업의 과정으로 콜럼비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고위공무원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인근 지방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GMP 과정의 공무원들은 나이가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미국인 학생들과 깊은 교류를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룹토론이나 그룹 발표를 통해서 좀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수업이 없는 날이나 주말에는 주로 공공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기도하고, 관련자료를 빌리거나 저렴한 비용, 50센트에서 2달러 정도로 판매하는 책을 사서 보기도 하였으며, 종종 여기에서 그룹스터디를 하기도 하였다. 수업이 있는 날에는 미주리 대학의 Elis 도서관에서 주로 과제를 처리하였고, 동료 미국 및 외국 학생들과는 도서관의 회의실 또는 트루만스쿨 학생라운지를 이용해 토론을 하였다.

저와 우리가족의 경우 학교내에 있는 카톨릭 성당인 New man Center에서 한인 공동체들과 교류를 통해서 보다 깊은 미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 이 성당을 통해 미국내 빈곤층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집 가까운 미국 개신교 교회 성경공부에 참가해 성경공부 및 영어공부를 한 것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국 일반 백인들의 종교관과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미국의 석사과정은 다 비슷하겠지만 나이가 50이 넘은 나이에 젊은 미국 및 국제학생들과 수업을 듣고 토론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뿐만아니라 수업 전에 읽어야 하는 책들로 인해 거의 모든 1년의 기간을 수업을 쫓아가는데 전력하였던 것 같다. 여름방학 기간에도 Dual-Degree의 경우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해 몇칠간의 여유를 제외하고는 수업에 전력했어야 했다. 미국 친구들과 사귀기는 하였으나,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별도로 과외 활동을

하는데는 많은 숙제를 해야하는 관계로 제한이 따랐다.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수영장이나, 헬쓰장을 사용할 만한 정신적인 여유나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미국대학의 행정이론과 실무를 배워 우리시에 돌아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은 것,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토론이 가능하게 된 점, 수업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 점 등은 앞으로 울산시에 돌아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다 큰 스케일로 다양한 각도에서 국제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또한 2016년 미국 대선 기간동안 미국인들의 대선 열기를 느끼고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사회의 진면목을 다소나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항공권 구매, 비자처리, 해외장기체류보험 등을 한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여 비용도 절약하고 편리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었다. 택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모든 가족이 이민가방 각각 2개, 가방 및 기내 캐리어를 가지고 콜럼비아로 도착했고 고생은 좀 하였으나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일부 동료의 경우 짐 늦게 도착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귀국시에는 올때와 마찬가지로 이민가방 각각 2개씩, 기내 캐리어 개, 가방 1개씩을 지참하고 귀국하였다. 다만 퍼블릭 도서관에서 구입한 질 좋은 중고 책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서 먼저 택배배송을 하였다.

한국인이 집단 거주하는 마을인 소위 꽃동네라는 곳에 거주를 하였는데, 이웃과 많은 정보를 나누면서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같은 마을에 사는 석사과정 동료나 박사과정 또는 박사후 과정의 분들과 어려운 숙제도 함께 나눌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거주지 인근에 공원들이 많아 주말에는 시간이 날때 마다 잠시나마 산책, 테니스, 조깅, 야외파티 등을 할 수 있었고, 미주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시설, 음악교육 프로그램, 미식축구 경기 등 다양한 문화활동도 접할 수 있었다. 교회와 성당을 위주로하는 한인교회, 성당 등의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동반가족의 신앙생활이나 과외활동 등 여러가지 도움을 받고 생활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카톨릭 한인 커뮤니티에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 온 가족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가정과 친밀한 교류를 할 수 있었고 학교 수업이나, 생활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미국에서의 석사 Dual-Degree 프로그램에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미국 교수들은 한국에서 석사과정으로 오는 공무원들이 외국인이고, 다른 미국 대학원생에 비하여 나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통례이나, 교수들에 따라서는 이런 점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열심히 수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국 대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화 자체가 달라 예를 들어 나의 경우 완성본이 아닌 중간과정의 거친 Draft를 제출하는데 관련 참고 문장을 복사해서 참고자료 간단한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는데 이를 미국학생들은 저작권 침해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곤란한 일을 당할 번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수업 자체가 한국의 일반 대학원들에 비해 독서량이나 숙제, 발표가 많은 편이므로 사실상 취미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적으나,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리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한다면 수업이 보다 재미 있고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취미활동도 다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에서

대학원과정이나 생활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콜럼비아 내에서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가 하지 못했던 점을 들 수가 있겠고, 대학원 수업 내외에서 미국의 생활에서 한가지 배운점은 미국이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등 배울 점이 많이 있지만 미국도 의료시스템, 민주주의의 실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장점을 키우고 발전시킨다면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훌륭한 나라,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2015년도 GMP 국외훈련 귀국 보고서

성 명: 함 재 욱

훈련국가: 미국, 미주리주립대학(University of Missouri State)

훈련과정: 학위(행정학, Master of Public Affairs)

훈련분야: MDP(개발정책학)

훈련과제: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시사점 및 도입방안 연구

보 고 내 용

I. 훈련기관 소개

미주리주립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 행정대학원(Harry S Truman School of Public Affairs)은 1839년에 설립되었으며, Columbia, Missouri (중부, 미주리주 중부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학생수는 약 35,000여명(학부 28,876, 대학 6,565)이며, 행정대학원은 약 150명 (50 Government officials, 40 Internationals)

이 수학하고 있다. 대학 교직원 13,303명(교수 및 강사 2,184명)으로, 미국 전체에서 학교순위는 3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기운영은 semester제로 운영되며 봄/가을학기부터 시작된다.

- spring semester : 1월 중 ~ 5월 중 - fall semester : 8월 중 ~ 12월 중

II. 훈련 소감

2015년도 KDI School에 GMP과정에 합격 후 치열한 1년여 간의 노력 끝에 2016년도 미주리대(University of Missouri) 행정대학원(이하 대학원)에 합격하였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내 자신과 딸아이와 약속을 한가지 하였다. 어떤 대학원 수업이든지 수업 시간 중 한번 질문하고 한번 답변하라는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1년 학기중 내내 나만의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였다. 수업시간에 질문과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과목의 예습과 복습은 필수였으며, 나름 깊이있는 사고와 의미를 생각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덕분에 몇 가지 손에 꼽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

첫 번째,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사물과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그 발생의 원인과 결과, 반

대급부, 파급효과 등을 내 자신의 시각과 지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수업과목 중 공공정책의 집행과 평가(Public Policy Process and Evaluation) 과목에서, 교수님과 학생간의 토론식 수업을 통해 다른 관점과 의견을 폭넓게 공유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영어글쓰기(Writing)와 말하기(Speaking) 실력이 다소 향상되었다. 내 자신과의 약속-수업시간에 무조건 질문하고 답변한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고민한 결과 1년전에 비교할 때 영어실력은 확실히 향상되었음을 느낄수 있었다. 특히, 대학원 과목을 수강할 때 과목별로 주, 월단위로 제출하여야 하는 과제물을 작성하기 위해 교과서와 논문(Article)을 읽고, 작문하는 동안 영어 글쓰기 실력은 크게 배양되었다.

세 번째, 내가 근무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학 및 대학원, 시청 등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16. 9. 22일 미주리 대학교내 언론 연구소(Reynolds Journalism Institute)에서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사례(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Relocation of administrative capital city in S. Korea)”라는 주제로 동 대학(원) 교수, 대학원생 및 콜럼비아(Columbia City)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 참석자를 살펴보면 미주리 대학교 행정대학원장(Barton Wechsler), 공공정책학 교수(Charles Menifield), 콜럼비아 시청 직원(City Manager)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부 내용은 행정수도의 이전 배경, 도시계획 이념(분권 및 균형발전), 주요 기반 시설(정부세종청사, 중앙호수공원, 국책연구기관, 간선급행 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공공 자전거시스템(어울링), 토지이용계획, 생활권 계획 등) 및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설명회 직후 참석자 및 대학원생 등 수십 명이 홍보물과 안내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네 번째, 미국에서 1년간 운전을 하고 난 후, 운전습관이 더욱 절제되고, 조심성있으며, 남을 배려하는 운전법을 배우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과속, 신호 위반등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스티커와 범칙금을 부과하며, 그에 따라 다음번 차량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남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자연스럽게 체득되었다. 비록, 하찮은 습관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 급증, 음주 운전등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내 자신과 이웃을 지켜주는 훌륭한 습관을 배웠다고

자부한다.

II. 훈련소회

1년간의 짧고 기나긴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서 내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시각과 깊은 사고력, 영어 실력의 향상, 내 조직과 소속기관의 홍보, 운전습관의 향상 등은 크나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 특히, 내 인생의 40대 중반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 타국에서의 가족과의 생활 등은 앞으로의 내 삶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GMP과정을 이끌고 지원해 주신 KDI School 관계자 및 미주리 대학교 교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 수료자 함재욱

2016.12.27.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길동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letters2gil@gmail.com

대학원명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 Public Affairs	(국가) 미국
기 간	'16. 1월 ~ '16. 12월	[귀국일: '16년 12월 27일]
첨부서류	GMP 2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I. 훈련기관 소개

- 기 관 명 :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Harry S Truman School of Public Affairs)
- 설립연도 : 1839
- 소 재 지 : Columbia, Missouri (중부, 미주리주 중부 소도시)
- 홈페이지 : <http://truman.missouri.edu/degrees-programs/mpa/>
- 학 생 수 : 학부 28,876명 /대학원 6,565명
(외국인 학생 2,417, 한국유학생 약 183여명)
- ※ Truman School of Public Affairs
 - 설립연도 : 2000년
 - 학 생 수 : 150명 (50 Government officials, 40 Internationals)
- 교직원수 : 13,303명(교수 및 강사 2,184명)
- 학교순위 : 행정대학원 분야 33위
- 행정대학원(Harry S Truman School of Public Affairs)은 semester제로 운영되며 봄/여름/가을학기
 - Spring Semester : 1월 중순 ~ 5월 중순
 - Summer Semester : 5월 중순 ~ 8월 초 (1과목 이상 반드시 들어야 함)
 - Fall Semester : 8월 중순 ~ 12월 중순

II. 훈련기관 소개

- 미주리대(University of Missouri)는 1839년 미시시피강 서쪽에 최초의 공립학교로 설립되었음. 그 후 미주리대는 (또는 MU) 미주리주 안에서 가장 큰 공립학교로서 수많은 학생을 배출하며 많은 학문적 연구성과 연구를 달성하고 있음
- 미국내 상위에 속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한 미주리 주립대 미주리대는 4개의 캠퍼스가 하나의 시스템인 한 개의 University of Missouri System으로 묶여 유지 관리 되고 있으며, 그 중 컬럼비아 캠퍼스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가 메인(Main) 캠퍼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미국내 34개의 공립대학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미주리내 유일하게 미 대학 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미국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대학교 [미주리대학 Memorial Union 빌딩] 연합체로 34개의 주립대와 26개의 사립대로 구성의 멤버로 선택되어 있음.
- 미주리대는 700개의 온라인 과정을 포함 총 321개의 학위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에 의해 의학/수의학과 함께 종합적인 박사과정들이 지정되어 있음. 특히, 저널리즘(신문방송학) 과정을 비롯해 의학, 약학, 농학, 수의학과, 법학, 그리고 MBA 등은 미국내에서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III. 훈련기관 교섭 자료 (KDI 1+1 연계 프로그램)

○ 입학요건

- 신청기한 : 11월 15일
- 어학성적 : TOEFL(IBT) 79, GRE (Waiver)
- 구비서류 :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KDI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추천서 3부, SOP 1부, Resume 1부, 재정 보증서 1부

○ 학점 이수 및 졸업요건

- 1년 중 3학점 * 8과목, 총 24학점 이수, 6 Core Courses 및 2 Selective Courses 수강
- Capstone Research Project(Waiver)

○ 학 비 : \$34,776

-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위 학비에는 생활비와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

IV. 현지생활 소개 등

① 컬럼비아시

- 개 요 : 미주리주 중부에 위치한 컬럼비아시(Columbia)는 미국 서부 개척시대 서부로 통하던 관문 역할을 하던 세인트루이스(St. Louis)에서 서쪽으로 약 2시간 거리(약 200km)에 위치하고 있음. 동쪽으로는 서부로 연결되는 도시의 하나인 캔사스시티(Kansas City)가 역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 미국 5대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Chicago)가 미국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가 여길 수 있는 약 7시간 거리(약 700km)에 있어 비교적 대도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남쪽으로는 미주리(Missouri)주의 주도인 제퍼슨시티(Jefferson City)가 약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거의 미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국 동/서/남부 전역 어느 곳이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컬럼비아는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 매년 상위에 오를 정도로 생활환경과 교육여건이 우수하며 물가도 싼 편임. 또한 기후도 한국과 비슷하여 한국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일반사항

- 인구 : 약 120,000명
- 면적 : 160 km² (48,400,000평)
- 가구당 평균소득 : 약 \$52,000
- 실업률 : 5.0%
- 주요 인종: 백인(79%), 흑인(11.3%), 동양인(5.2%), 히스패닉(4.5%)
- 기 후
 - ▶ 평균 기온 : 12.2°C (1월 : -23°C, 7월 : 25.2°C)
 - ▶ 평균 강수량 : 1,023mm
 - ▶ 평균 강설량 : 579mm

② 입출국 이동경로

- 인천 - 달라스 - 컬럼비아 (주로 이용)
- 인천 - 시카고 - 컬럼비아

③ 주거형태

○ 주요 거주 형태는 개인주택과 임대주택(아파트 또는 듀플렉스) 두 가지가 있음. 방문자의 경우, 거주기간이 단기이므로 주로 임대주택에서 생활을 하게 됨.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어 임대주택은 월세로 임대를 하게 됨. 컬럼비아의 경우 임대주택의 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입주시 한 달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게 됨.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있으나, 그 수가 적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본 월세보다 월세 금액이 다소 비싸지는 단점이 있음. 또한, 개인주택을 월세로 빌려 살 경우 본인이 주택관리(잔디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음.

※ 주요 한인 거주지(월세)

- Wind River Circle (서부 지역, \$1,000~\$1,200)
- Millbrook, George Town (서부 지역, \$700~800)
- Rockbridge (남부 지역, \$750~\$850)
- 꽃동네 (북서부 지역, \$700~\$800)
- Timber Creek (북서부 지역, \$825~\$900)

○ 아파트 선정 및 임대 계약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 져야 하므로, 아시아 어페어스 센터(미주리 국제교육원)에서 사전에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추천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선호하는 임대주택의 위치나 가격대를 미리 알려주고 첫 달치 임대료와 보증금을 송금하거나, 도착한 후에 집주인을 만나 첫달치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음. 컬럼비아 및 미주지역 임대주택(아파트, 듀플렉스)에 관한 정보는 www.move.com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④ 자동차 구입

○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KBB 웹사이트(www.kbb.com) 가격의 Good Value에서 상태에 따라 \$500 정도를 가감. 단, 우박피해등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은 상태에 따라 Fair Value에서 \$1,000~\$2,000 정도 감하면 적정함.

○ 제조년도 기준으로 만 5년이 되지 않은 차는 등록시 차량 검사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5년 이상된 차량은 검사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검사증을 받아 놓으라고 차주에게 요청해야 함. 인수시에는 타이틀(Certificate of Title)이라고 하는 차량 소유증, 검사증, 자동차 열쇠, 자동차를 받으면 됨.

⑤ 자동차 등록

○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라 불리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면 됨. 자동차 등록은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타이틀 : 자동차 등록증(Certificate of Title)
- 보험증명서 : 자동차 보험 가입시 발급되는 임시증명서로도 가능
- 안전점검 확인서 : Inspection 후 받은 증명서, 새차 또는 제조년 기준 만 5년 이내의 차량은 필요 없음, 개인간 거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돈을 지불하기 전 Inspection을 받음.
- 자동차세 납부면세 증명서 : Property Tax Waiver, 전년도 재산세 납부 기록이 없다는 증명서

⑥ 자동차 운전면허

○ 미주리는 국제면허증 인정이 불분명하고(과속 등에 따른 경찰단속이나 사고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음)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인 점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 취득을 필수임.

○ 면허 시험은 한국과 같이 필기와 주행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의 경우 한국의 시험 난이도와 같거나 조

금 쉬운 수준임. 특히, 필기시험은 한국어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필기시험 합격은 무난하게 통과하게 됨. 다만, 주행시험은 도로상황이나 신호체계 등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연습을 필요로 하며 3번까지 기회가 주어짐. 보통 미국에 도착하여 3개월 안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며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인 6개월을 넘기지 않음.

⑦ 은행계좌 개설

○ 컬럼비아에는 많은 은행들이 있지만, 가장 편리한 은행은 (지점수 및 현금 인출기 수가 많은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NK OF AMERICA) 와 U.S. Bank임,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NK OF AMERICA)에서는 최저 잔고 (Minimum)를 요구하지만 U.S. Bank의 경우 제한이 없음.

○ 신용카드 개설의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시얼 시큐리티 넘버(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지 않지만 U.S. Bank는 필수임.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U.S. Bank에서는 신용카드를 개설할 수 없음(단, 직무과정의 경우는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됨). 여행시에 호텔 예약 등을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

⑧ 유선방송(TV) 및 인터넷 신청

○ 컬럼비아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인터넷망은 한국에 비해 속도가 훨씬 느린 편임. 거주하는 주택에 인터넷 및 유선방송(Cable TV)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유선방송과 인터넷을 신청해야 함. 인터넷 업체는 유선방송 선(Cable)을 이용하는 미디어컴(Mediacom)과 차터(Charter), 전화선을 이용하는 센트리링크(CentryLink)가 있음. 전화를 설치 하지 않을 경우, 센트리링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미디어컴 또한 유선 방송 서비스를 신청해야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

○ 한 달 요금은 센트리링크의 경우 인터넷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미디어컴 또한 유선방송 서비스 선택에 따라 12개월간 서비스 기간(확장유선+인터넷: \$70/월)이 통상 주어지며 12개월 이후부터 정상요금(확장유선+인터넷: \$100 이상/월)으로 요금을 받음. 시기에 따라 제공되는 옵션과 가격의 변화가 큼.

○ 유선방송의 경우 기본서비스(Basic) 또는 확장(Expand Basic) 서비스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확장 서비스의 경우 각종 스포츠 방송과 광고가 있는 영화방송(때론 광고 없는 영화 방송)이 포함되며, 광고 없이 영화만 상영하는 방송(HBO, CINEMAX, SHOWTIME)의 경우 따로 추가요금을 내고 선택할 수 있음.

⑨ 전기/가스/수도/쓰레기 서비스(Utility Service) 신청

○ 컬럼비아의 전기 및 수도, 쓰레기처리(통합해서 '유틸리티'라 함)는 주로 컬럼비아 시에서 관리 하고 있음. 다운타운 내 컬럼비아시청사 내 전기, 수도 서비스 센터사무실(1층)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 신분증 및 아파트 계약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함. 첫달 고지서에 보증금이 사는 주택에 따라 약 \$100~\$130 정도 포함되어 나옴. 쓰레기는 통상 주 1회 지정된 날짜에 수거해가며 분리수거는 통상 종이류, 유리 및 플라스틱류와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면 됨. 유틸리티 고지서는 한달에 한번 우편으로 배달되며 인터넷이나, 자동이체, 방문 또는 수표(우편물로 보냄)를 우편을 이용해 지불할 수 있음.

○ 주거지에 따라 난방을 가스로 하는 집들은 가스회사에 가스서비스도스 신청해야 함. 가스 신청은 전화로 가능하며, 이용 고지서는 집으로 우편배달 됨.

○ 미국의 경우, 전기요금에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저렴한 전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살지 않는 문화적 특성과, 한국과 비교해볼 때 열악한 주택 단열구조 등을 고려하면 한국 아파트 관리비 수준과 비슷한 금액을 지불하게 됨.

교학처장 귀하

2017년 2월 10일

신청인:

Gildong Kim

